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인식, 태도 및 예방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정명순¹ · 윤숙례² · 박선옥³ · 이애영⁴ · 장지혜⁵

^{1~5}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부

Effects of Professional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ttitude, and Needs of Prevention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Myeong Soon, Jung¹ · Sook Rye, Yoon² · Seon Wook, Park³ · Ae Young, Lee⁴ · Ji Hye, Jang⁵

^{1~5}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pply the dementia prevention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to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ttitude and needs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Methods :** This study used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re were nursing students from G city enrolled in this study,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16 and October 28, 2020. The prevention of dementia instructor program was applied for 4 hours / session for 48 hours, using a 12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Win 23.0.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 = -2.20, p = .040$)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t = 2.49, p = .022$) and needs of dementia-prevention education ($t = -2.23, p = .038$). After the prevention of dementia instructor program, perception of dementia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 dementia ($r = .45, p < .049$). **Conclusion :** Dementia prevention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is effective in raisi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reven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implement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 through regular or non-regular subjects.

Key words : Dementia, Perception, Attitude, Students, Nurs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며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 15.7%를 차지하였고, 2025년에는 20.3%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노인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는 2021년 84만 명에 달하고 있고,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3%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치매는 오랜 기간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며, 뇌세포 손상으로 인해 특징적인 증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된다[3,4]. 그러나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조기발견과 치매 정도에 따른 관리를 통해 치매의 진행속도를 최대한 저하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다[3,4]. 치매의 예방과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3].

우리나라 국민의 치매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5], 미래에 의료인으로 치매 환자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간호대학생의 인식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6,7].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치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6-10]. 간호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면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주체이므로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는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7,8]. 또한, 전문적인 치매 관련 인식과 태도는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치매노인을 간호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에 영향을 미쳐 노인 관련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나 학부 과정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론적인 교육만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6,11,12]. 따라서 치매노인의 간호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8,13].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어떤 교육 내용이 요구되는지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예방교육 요구도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9].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교육 요구도는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9], 치매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14],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치매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치매에 대한 태도이며[12], 치매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는 교육 요구도를 높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프로그램 전후 요구도의 변화를 확인하여 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관리 방법 중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4]. 노인 대상 치매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통합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 인지행동 프로그램, 온라인 환경 프로그램, 음악활동 프로그램 및 실버인지건강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15,16],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에도 효과가 있었고[16,17],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18]. 특히 국내 경증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4], 자극중심 접근법과 통합적 접근법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중심 접근법은 중간 정도의 효과가 확인되었다[4]. 치매예방을 위한 통합프

로그램은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5], 우울을 감소시키며[16], 신체기능 향상 및 자아존중감 증가와 함께 치매예방행위를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었다[4,5]. 따라서 치매 환자 간호에 통합프로그램 등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호 현장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매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8]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 실버인지들이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19]. 이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발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인지장애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게 되고, 입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함으로써 전공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의 효과와 더불어 간호전문인으로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1].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위해 개발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전공 교육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치매와 치매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간호교육 과정 중 임상 실습 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치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치매예방 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넷째,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치매에 대한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 G시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aired t-test에 필요한 표본 크기를 계산한 결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70, 검정력 .80으로 설정하였을 때[8] 요구되는 최소 표본크기는 19명으로 산출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는 2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치매에 대한 인식

치매에 대한 인식은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 즉,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14]. 본 도구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하였으며, 4명의 치매 전공 정신과 교수와 1명의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선정한 1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본 도구의 항목은 질병에 관한 지식을 묻는 5문항, 증상에 관한 지식을 묻는 3문항, 치료에 대한 지식을 묻는 2문항, 간호에 대한 지식을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선택할 수 있다. 맞으면 1점을 틀리면 0점을 할당하여 전체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KR20 (Kuder and Richardson Formula 20) 값은 .58이었다.

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북아일랜드 라이프 앤 타임즈(Northern Ireland Life and Times, NILT)에서 노인에 관한 인식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2]. NILT는 벨파스트의 퀸스대학교(Queen's University)와 얼스터대학교(Ulster University)가 주축이 되어 1998년부터 매년 주요 사회 쟁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NILT가 사용한 도구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노인간호 전문가 3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2].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치매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2였다.

3)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치매예방교육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설문 문항을 본 연구자들이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23].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 측정은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

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예방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 범위는 0에서 30점이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실버인지돌이지도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19]. 치매예방 실버인지돌이지도자 프로그램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서, 인지학습프로그램, 인지검기프로그램, 실버보드게임, 실버놀이프로그램 및 회상치유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19]. 이 프로그램은 치매예방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기 당 교육시간은 4시간, 총 12회기이며, 치매에 대한 전문가의 이론 강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준비, 다양한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 실습, 지도자 자격시험 및 프로그램 시연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적용 전 노인간호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강사와 면담 후 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치매와 노인에 대한 이론은 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1회기 강의 주제는 치매에 대한 이해로, 교육 내용은 치매의 원인과 증상, 진단과 치료, 치매 선별검사, 장기요양보험과 국가치매정책의 방향 등이었다. 2회기 주제는 노인에 대한 이해였으며, 노인교육 및 인지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간호 전문가가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다(Table 1).

3회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한국치매예방센터의 전문강사가 레크리에이션과 프로그램 소개를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4회기부터 11회기까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였다. 각 회기는 인지회상, 레크리에이션, 인지운동, 이미지 메이킹, 인지미술, 인지음악, 방문학습, 실버보드게임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2회기에는 실버인지돌이지도자 2급 자격에

Table 1. Dementia Education Program

Session	Subject	Contents	Time
1	Understanding dement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uses and symptoms, diagnosis and treatment • Dementia screening test •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direction of national dementia policy 	4 Hours
2	Understanding e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derly education and cognitive health 	4 Hours
3	Ori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reation • Program introduction 	4 Hours
4	Cognitive-Reminiscenc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game 	4 Hours
5	Recr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derly gymnastics 	4 Hours
6	Cognitive-Exercise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derly exercise - cognitive walking 	4 Hours
7	Image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ge making program for elderly 	4 Hours
8	Cognitive-Ar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 drawing, origami, artistic coloring 	4 Hours
9	Cognitive-Music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ythmic percussion, cognitive cup play 	4 Hours
10	Visiting Learn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titutional textbooks, handouts for cognitive learning, Spring summer autumn winter 	4 Hours
11	Silver board g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ard game to prevent dementia 	4 Hours
12	Test and class demon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letion ceremony 	4 Hours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여 시연하였다(Table 1).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와 보조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회기마다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확인하였다.

4. 자료수집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회 4시간, 12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G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공지한 후,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직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 본 연구 대상자는 프로그램 및 연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및 연구에 대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참여를 철회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유지가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에 자필서명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변화는 paired t-test,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여성 18명(90.0%), 남성이 2명(10.0%)이었고, 평균 연령은 26.95 ± 7.57 세, 학년은 1학년 4명(20.0%), 3학년 7명(35.0%), 4학년 9명(45.0%)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15명(75.0%)이었다(Table 2).

치매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명(70.0%), 평소 치매에 대한 관심은 매우 관심이 있음 5명(25.0%), 조금 관심이 있음 14명(70.0%), 별로 관심이 없음 1명(5.0%)이었고, 치매에 대한 인식은 조금 알고 있음이 16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없음이 14명(70.0%)로 가장 많았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음은 5명(25.0%), 가까운 지인(친척 포함)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음은 1명(5.0%)이었다.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명(65.0%)이었고, 치매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 수준은 다른 건강 정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13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30.0%)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and Dementia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ean \pm SD	%
Gender	Female	18	90.0
	Male	2	10.0
Age(Year)		26.95 \pm 7.57	
Grade*	Freshman	4	20.0
	Sophomore	0	0.0
	Junior	7	35.0
	Senior	9	45.0
Religion	Yes	5	25.0
	No	15	75.0
Educational experience for dementia	Yes	14	70.0
	No	6	30.0
Level of interest in dementia	Very interested	5	25.0
	A little interested	14	70.0
	Not interested	1	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ean \pm SD	%
Awareness of dementia	Know very well	2	10.0
	Know a little	16	80.0
	Do not know	2	10.0
Dementia patients nearby	In the family	5	25.0
	Among close relatives	1	5.0
	None	14	70.0
Experience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Yes	7	35.0
	No	13	65.0
Experience of accessing information related to dementia	Often	0	0.0
	Similar to other health information	13	65.0
	Rarely	6	30.0
	Not	1	5.0

2. 프로그램 전·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

프로그램 전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프로그램 전후 치매에 대한 인식은 10.15 ± 1.35 점에서 11.00 ± 1.08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고($t = -2.20$, $p = .040$), 하위영역 중 치매의 원인($t = -2.98$, $p = .008$), 치매 증상 및 진단($t = -2.63$, $p = .017$)은 프로그램 후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예방 및 치료와 치매 간호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26.95 ± 3.15 점에서 29.30 ± 3.63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여($t = -2.49$, $p = .022$)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전후 치매예방교육 요구도는 34.90 ± 5.10 점에서 37.70 ± 3.91 점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23$, $p = .038$). 5점 기준으로 각 문항별 평균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t = -2.33$, $p = .031$),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로그램’($t = -2.67$, $p = .015$),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t = -2.33$, $p = .031$),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t = -2.35$, $p = .031$),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t = -2.35$, $p = .031$).

=.03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프로그램 적용 후 해당 문항의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3.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간의 관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5, p=.049$). 즉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Table 3. Differences Perception, Attitude and Needs of Dementia Preventive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N=20)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	p
		Mean	±SD	Mean	±SD		
Perception	(total)	10.15	±1.35	11.00	±1.08	-2.20	.040
	Causes	4.15	±0.75	4.70	±0.57	-2.98	.008
	Symptom & diagnosis	2.30	±0.66	2.70	±0.47	-2.63	.017
	Prevention & treatment	1.85	±0.37	1.65	±0.49	1.45	.163
	Nursing care	1.85	±0.37	1.95	±0.22	-1.45	.163
Attitude	(total)	26.95	±3.15	29.30	±3.63	-2.49	.022
	(5 point)	3.85	±0.45	4.19	±0.51		
Needs of preventive education	(total)	34.90	±5.10	37.70	±3.91	-2.23	.038
	(5 point)	3.49	±0.51	3.77	±0.39		
	Understanding dementia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	3.40	±0.51	3.65	±0.59	-1.56	.135
	Early dementia screening and dementia prevention health rules	3.60	±0.60	3.80	±0.41	-1.45	.163
	Chronic disease management for dementia prevention	3.50	±0.61	3.70	±0.47	-1.17	.258
	Exercise to prevent dementia	3.50	±0.69	3.80	±0.41	-1.67	.110
	Healthy eating to prevent dementia	3.40	±0.60	3.75	±0.44	-2.33	.031
	Mental health for dementia prevention	3.60	±0.60	3.80	±0.41	-1.45	.163
	Cognitive promotion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3.50	±0.61	3.85	±0.37	-2.67	.015
	Social measures against dementia	3.50	±0.76	3.80	±0.41	-1.55	.137
	Understand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or dementia patients	3.40	±0.60	3.75	±0.44	-2.33	.031
	How to live happily with dementia patients	3.50	±0.61	3.80	±0.41	-2.35	.030

Table 4. Correlations of Perception,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Needs of Preventive Education (N=20)

	Perception $r(p)$	Attitude $r(p)$
Attitude	.45 (.049)	1
Needs of preventive education	.21 (.368)	.33 (.368)

램은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운영하는 치매예방 실버 인지놀이지도자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19]. 전체 과정은 한 회기에 4시간씩 총 12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학습프로그램, 인지걷기프로그램, 실버보드게임, 실버놀이프로그램 및 회상치유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치매환자의 신체적 활동을 자극하는 동시에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다[16,19]. 선행연구에서 강도가 낮은 운동과 가벼운 신체활동은 알츠하이머치매를 포함한 퇴행성뇌질환, 더 나아가 노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운동, 음악, 인지훈련, 치료레크리에이션 등의 통합적 접근법이 치매예방에 대해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4,15,16].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치매 환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호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6,11-13,19,20]. 또한, 간호 현장에서 치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습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19,20], 이론과 실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13,19]. 치매예방 실버인지놀이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8]. 프로그램 후 치매에 대한 인식은 12점 만점에 11.00점이었는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70점[14],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17점[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치매에 대한 인식은 치매에 대한 원인, 증상 및 진단, 예방 및 치료, 치매 간호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식수준이 낮게 측정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6].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와[8] 노인간호 교육 후 치매에 대한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13]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실습이 충분히 병행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하위영역 중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치매의 원인, 치매의 증상 및 진단 영역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인식 변화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와[8] 노인간호 교육 후 교육군이 비교군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선행연구[13] 결과와 같았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각 문항이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5점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후 4.19점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86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56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었으며[12], 노인간호 교육 후 교육군이 4.10점이었던 것과[6] 유사한 결과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사전 점수 3.85점은 선행연구[6] 결과와 비슷하였지만, 프로그램 적용 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결과를 근거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전후 치매예방교육 요구도는 프로그램 적용 전 3.49점에서 적용 후 3.77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3.6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시행 후 점수가 더 높았다[12]. 그러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5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9] 본 연구 결과보다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60세인 일반 성인의 경우,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9]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매예방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예방교육 요구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전에는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건강수칙’과 ‘치매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이 가장 점수가 높았지만, 적용 후에는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로그램’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치매에 대한 예방법이 가장 높았고[14],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지역사회 치매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12]. 대상자에 따라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이[12], 학력, 치매에 관한 관심[14], 지식, 태도에 따라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매예방교육의 경우, 대상자의 교육 요구도를 미리 파악하여 요구도에 맞게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인지증진프로그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및 치매 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은 12회기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나 본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인지증진프로그램이나 치매 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구마다 연구대상이 달랐던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6,7,9,12,25]. 치매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간호 교육이나 치매교육 프로그램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차이가 있다. 노인간호 교육이나 치매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치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8] 본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기존의 간호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간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에 적용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상 학년, 교과과정, 노인간호학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대조군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외부적인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실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치매예방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과 비정규 교과 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간호를 위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는 간호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간호 교육과 더불어 치매 관련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이 교과과정 외에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ocial Indicators in 2019. Seoul: Statistics Korea; 2020.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mentia morbidity survey 2019.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cited 2021 August 2]. Available from: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21.
3. Park CY, Jo AJ, Kang SH, Yu SY. Current trends of dementia management in Korea and come countries. The Journal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2018;6(1):4-15. <https://dx.doi.org/10.34161/johta.2018.6.1.002>
4. Min HJ, Chang JY.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korean elderly: focused on cognition, stimulation and integration program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20;75(3):85-119. <https://dx.doi.org/10.21194/kjgsw.75.3.2020.09.85>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earch on establishing the third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Research repor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Report No : 11-1352000-001553-01.
6. Kwon MS, Lee JH.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9):177-185. <https://doi.org/10.5762/KAIS.2017.18.9.177>
7. Nam HR. The effect of perception, attitude,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9;3(1):51-59. <https://doi.org/10.30580/jknr.2019.3.1.51>
8. Kang HY, Chae MJ, Seo HS, Yang KM.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1):69-77.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69>
9. Park SN, Lim HS.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of preventive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in adults. 2020;18(4):347-356. <https://doi.org/10.14400/JDC.2020.18.4.347>
10. Lee JH, Seong JA. The effect of knowledge, attitude and empathy of care givers for elderly on quality of serv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0;4(4):97-109. <https://doi.org/10.34089/jknr.2020.4.4.97>
11. Alushi L, Hammond JA, Wood JH. Evaluation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s for pre-registration healthcare students-a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2015;35(9):992-998. <https://doi.org/10.1016/j.nedt.2015.04.006>
12. Ha EH.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for dementia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3):353-363. <https://doi.org/10.5762/kais.2018.19.3.353>

13. Park SJ, Park KS, Kim YJ.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7);4467-4477.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467>.
14.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Survey on dementia awareness by the citizens of Seoul. Research report. Seoul Metropolitan: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8.
15. Yang SK, Ko BS, Park JH. Domestic research trends of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1);131-143. <https://doi.org/10.5762/KAIS.2019.2>
16. Kim NY, Jeong HJ, Jang AR. The study of th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function by cognitive health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9;39(4);801-824. <https://doi.org/10.31888/JKGS.2019.39.4.801>
17. Oh JY, Lee SH.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cognitive rehabilitation program on the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elderly with mild dementia.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20;27(2);94-102. <https://doi.org/10.5953/JMJH.2020.27.2.94>
18. Sun JJ, Oh SH.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integrated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life in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7;7(3); 55-64.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3.055>
19. Korea Prevention of Dementia Association. Prevention of dementia professional education [internet]. Wonju: Korea Prevention of Dementia Association; 2020 [cited 2021 August 10]. Available from: http://www.chimae.or.kr/bbs/board.php?bo_table=director_curriculum
20. Kim DR, Park YH.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as dementia partners in volunteer activities: An inductive content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8(2); 146-156.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46>
21. Jo SH, Kim EH.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7);317-323. <https://doi.org/10.15207/jkcs.2018.9.7.317>
22. Northern Ireland Life and Times [NILT]. Northern Ireland Life and Times Survey 2010 (ark.ac.uk). [cited 2020 August 8]. Available from: <https://www.ark.ac.uk/nilt/2010/>
23.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Seou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report. Seoul: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09
24. Spartano NL, Davis-Plourde KL, Himali JJ, Andersson C, Pase MP, Maillard P, et al. Association of accelerometer-measured light-intensity physical activity with brain volume: the framingham heart study. *JAMA network open*. 2019;2(4):e192745-e192745. <https://doi.org/10.1001/jamanetworkopen.2019.2745>
25. Je NJ, Park M, Yang HJ, Kim SY. Effects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wareness of aged support, and cognitive-affective empath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4); 100-111. <https://doi.org/10.5762/kais.2019.20.4.100>

editage

Editing Certificate

This document certifies that the Abstract of the manuscript listed below has been edited to ensure language and grammar accuracy and is error free in these aspects. The edit was performed by professional editors at Editage, a division of Cactus Communications. The author's core research ideas were not altered in any way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 quality of the edit has been guaranteed, with the assumption that our suggested changes have been accepted and the text has not been further altered without the knowledge of our editors.

MANUSCRIPT TITLE

The Effect of Professional Instructor Education Program for Dementia Prevention on Nursing Students

AUTHORS


Myeong Soon Jung, Sook Rye Yoon, Seonwook Park, Ae Young Lee, Ji-hye 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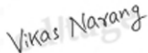
ISSUED ON

September 07, 2021

JOB CODE

PODNM_1





Vikas Narang
Chief Operating Officer - Editage

editage

Editage, a brand of Cactus Communications, offers professional English language editing and publication support services to authors engaged in over 1300 areas of research. Through its community of experienced editors, which includes doctors, engineers, published scientists, and researchers with peer review experience, Editage has successfully helped authors get published in internationally reputed journals. Authors who work with Editage are guaranteed excellent language quality and timely delivery.

GLOBAL :


+1(833) 979-0061 | request@editage.com


KOREA :

02-3478-4396 | submit-korea@editage.com

CACTUS

 **impact.science**

 **researcher.life**

 **lifesciences.cactusglobal.com**